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3. Vol. 22, No. 4, 763-776

심리적 피학대 여성의 수치심, 죄책감 및 사회적 지지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미치는 영향

전 철 은 현 명 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177명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심리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심리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와 함께 학대받는 여성에게 매우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학대의 독립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신체적 학대의 효과를 통제한 연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대받는 여성의 PTSD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정서적 변인으로서 수치심, 죄책감의 효과를 살펴보고, PTSD증상을 중재하는 변인으로서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심리적/신체적 학대 모두 PTSD증상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 신체적 학대를 통제한 후에도 심리적 학대의 독립적 효과가 유의하였다. 그리고 수치심은 심리적 학대와 PTSD를 매개하였으나 죄책감은 그렇지 않았다. 사회적 지지는 학대와 PTSD 증상을 중재하지 못했으나, 사회적 지지 중 가족지지는 PTSD 증상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학대받는 여성을 돕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지지해주기보다 우선적으로 그들이 가진 수치심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심리적 학대에 초점을 둔 가정폭력피해자와 가해자를 위한 프로그램, 가정폭력예방프로그램을 만들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주요어 : 심리적/신체적 학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수치심, 죄책감, 사회적지지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현 명 호 /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FAX : 820-5124 / E-mail : hyunmh@cau.ac.kr

우리사회의 기혼 여성 중 절반 이상이 결혼기간 동안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김재엽, 998; 심영희, 김익기, 박선미, 김혜선, 1992). 또한 여성폭력긴급전화 1366의 2001년도 총 상담건수 16,268건 중 가정폭력이 총 5,168건으로 전체 상담의 약 31.77%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가정폭력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서울여성의 전화, 2001).

남자배우자의 여성에 대한 신체적 학대는 임상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전문가의 동의가 있었고 최근에는 데이트와 결혼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학대에 관해 많은 임상적 관심이 있어왔다. 반면에 배우자에 의해 행해지는 여성에 대한 심리적 학대는 최근에서야 체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Street & Arias, 2001). 그러나 불행히도 파트너로부터 심각한 심리적 학대를 당하지 않고 신체적 학대만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Marshall, 1996). 또한 심리적 학대는 우울증(Campbell, 1989), 불안(Russell, Lipov, Phillips, & White, 1989), 사회적 철회(Star, Clark, Goetz, & O'Malia, 1979), 자살시도(Gelles & Harrop, 1989),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이하 PTSD)(Kemp, Green, Hovanitz, & Rawlings, 1995)를 포함한 폭넓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심리적 학대에 대해 보다 큰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Murphy와 Cascardi(1993)는 친밀한 관계내의 심리적 학대를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첫째, 심리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를 더 악화시킨다. 둘째, 심리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와 독립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야기한다. 실제로 몇몇 연구에서 "구타당하는 여성들"이 신체적 학대보다 심리적 학대를 더 해로운 자극으로 지각했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Street & Arias, 2001; Walker, 1979).

이와 더불어 매맞는 여성에게서 PTSD의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33%(Astin, Lawrence, & Foy, 1993)에서 84%(Kemp, Rawlings, & Green, 199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PTSD는 학대받는 여성의 주요한 정신병리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심리적 학대와 PTSD와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심리적 학대와 PTSD간의 관계가 광범위한 경험적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일부 학자들은 심리적 학대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s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정했다(Vitanza, Vogel & Marshall, 1995). 뿐만 아니라 심각한 심리적 학대에는 신체를 손상시키거나 죽일 것이라는 협박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Okun, 1986), 신체적 학대보다 심리적 학대가 여성에게 공포를 일으키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Sackett & Saunders, 1999). 특히 공포가 PTSD 발달(Briere, 1997)를 가장 잘 예측한다는 점을 살펴볼 때, 심리적 학대가 PTSD발생의 원인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외상성 사건과 PTSD와의 관계를 완전히 설명하는 심리적 기제는 밝히지 못하고 있지만, 대다수 이론들은 외상사건에 대한 생존자의 인지적, 정서적 반응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Foa & Riggs, 1993; Janoff-Bulman, 1992).

사회심리학자인 Janoff-Bulman(1992)은 폭력에 의한 희생과 외상을 설명하기 위해 "조각난 가정이론(shattered assumption theory)"을 완성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외상사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가정들-세계는 자비롭고 의미 있으며, 자신은 가치 있는 존재-을 산산 조각나게 만들며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균형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균형을 상실한 생존자는

"세계는 이해할 수 있고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환상을 복구시키기 위해, 자기비난과 같은 역설적이고 부적응적인 반응을 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 잃어버린 심리적인 균형을 다시 유지하게 된다(Janoff-Bulman, 1992). 이와 같이 외상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나는 가치있고 유능한 존재라는 생존자가 가지고 있던 도식이 산산 조각나면서 발생하는 정서가 바로 수치심이라고 볼 수 있다.

수치심은 인지와 정서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인지적 측면의 수치심은 전체적인 자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자하는 신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신념은 자신이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믿는 것에 도전하도록 만든다. 이에 비해, 정서적 측면의 수치심은 이러한 부정적인 자아평가로 인해 스스로를 작고, 가치 없고, 힘없는 존재로 느끼는 것을 말한다(Tangney, Wagner & Gramzow, 1992). 또한 여러 연구들은 수치심이 학대와 PTSD를 매개한다고 보고하고 있다(Andrews, Rose, Kirk, & Brewin, 2000). 즉 타인에 의해 폭행을 당한 사람들은 복종과 좌절을 하게 되고, 복종은 희생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정신병리와 연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대에 대해 자기비난을 많이 하고 수치심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자존감은 더 낮고 우울감과 PTSD증상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Feiring, Rosenthal & Taska, 2000).

이와 더불어, 외상과 관련된 죄책감이 학대와 PTSD 증상 사이를 매개하는 유의한 변인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었다(Kubany, Abueg, Owens, Brennan, Kaplan & Watson, 1995). Kubany 등(1996)도 구타당하는 여성이 죄책감을 많이 느꼈다고 보고했는데, 그들은 죄책감에 대한 여러 정의를 조사한 결과, 외상사건을 경험한 후 가지게 되는 죄책감은 수치심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죄책감의 정의에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는 것(commission)"과 "마땅히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한 것(omission)"에 대한 죄책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자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수치심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폭력생존자들이 죄책감을 많이 느낀다는 여러 연구결과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폭력생존자를 연구할 때 죄책감과 수치심을 개념적으로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위에 기술한 변인 외에, Green, Wilson 및 Lindy (1985)는 외상사건이 생존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복환경과 관련된 요인으로 부정생활사건, 사회적 지지, 대처능력을 들고 있다.

Kemp 등(1995)은 179명의 구타당하는 아내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PTSD와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사회적 지지가 학대와 PTSD증상을 중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ilver와 Wortman(1980)은 구타당하는 여성뿐 아니라 다양한 학대생존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에 대해 연구한 결과, 가족, 친구, 원조전문직, 그리고 지역사회로부터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호받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하며, 우울과 무기력에서 벗어나 재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긍정적인 자원이었다.

본 연구는 여성에 대한 학대와 PTSD 와의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학대받는 여성이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삶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심리학적 중재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체학대와 마찬가지로, 심리적 학대는 친밀한 타인에 의해 반복해서 오랜 시간동안 저질러질 뿐만 아니라, 심리적 학대와 신체학대는 대부분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심리적 학대를 받지 않고 신체적 학대만을 경험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심리적 학대만을

경험한 여성과 심리적/신체적 학대를 모두 경험한 여성을 비교하는 연구가 가능하다.

그 동안 심리적 학대와 심리/신체적 학대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심리적 학대만을 경험한 여성의 PTSD 증상이 높게 나타났지만 심리적/신체적 학대를 모두 경험한 여성의 PTSD 증상이 더 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emp et al., 1995; Vitanza et al., 1995). 그러나 심리적/신체적으로 학대받은 여성이 PTSD 증상을 더 높게 나타내는 이유가 두 가지 유형의 학대가 누적되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신체학대의 부정적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심리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의 상대적이며 특수한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에 대한 심리적/신체적 학대가 PTSD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그 중 심리적 학대가 PTSD에 미치는 독립적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심리적/신체적 학대와 PTSD증상 사이를 잠재적으로 매개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지난 오랫동안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는 공포, 불안, 죄책감, 자존감 등의 정서들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치료에서도 중요시되는 반면, 수치심은 그 중요성이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이호영, 2002). 그런데 여러 연구들은 생존자가 가지고 있는 분노보다 수치심이 PTSD를 보다 유의하게 예측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Andrew, Brewin, Rose, & Kirk, 2000), 수치심이 학대와 PTSD를 매개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Andrews et al., 2000; Feiring et al., 2002).

한편 죄책감이 학대와 PTSD증상 사이를 매개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Kubany et al., 1995). DSM-Ⅳ(APA, 1994)에서는 죄책감을 PTSD의 부수적 특징(associated feature)이라고 일컫는 것처럼, 외상사건을 경험한 후에 생존자가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Lee, Turner 및 Scragg(2001)는 수치심을 기반으로 한 PTSD 발달경로와 죄책감을 기반으로 한 PTSD 발달경로가 존재하므로, 각각의 발달경로에 따른 효과적인 치료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들의 죄책감과 수치심이 심리적 학대와 PTSD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가설과 매개효과가설 중 어떤 것이 타당한지 연구마다 달랐다. 본 연구자는 사회적 지지가 외상사건으로 인한 PTSD증상을 완화시킨다는 여러 선행연구들(Center for Policy Research, 1981; Kemp & Green, 1995)을 바탕으로 사회적 지지가 만성스트레스인 학대와 PTSD를 중재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배우자에 의해서 행해지는 심리적 학대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고자 하였기에, 대상을 가정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쉼터에 거주하는 여성뿐만 아니라 일반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으로 좀더 확장시켜 설문하였다. 일반지역사회 여성에게 190부 배부하여 138부, 쉼터여성에게 84부를 배부하여 46부를 회수하여 총 184명의 자료를 얻었으며(회수율은 67%), 이 중 잘못 기재한 자료 7부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유효한 총피험자 177명 중 25%가 쉼터여성이었다. 평균연령은 42.01세(SD=9.51)였고, 결혼기간은 평균 14.95년이었다.

측정도구

갈등관리척도 (Conflict Tactics Scales)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학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박미은(1997)이 번안한 Straus(1979)의 갈등관리척도를 사용했다. 총 18개 문항 중 신체적 폭력이라고 볼 수 없는 논의행동 3문항과 언어적 공격 6문항을 제외하여 총 9문항을 사용하였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가벼운 폭력 .94, 심각한 폭력 .92,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95로 보고되었다.

여성에 대한 심리적 학대 척도(PMWI: The Psychological Maltreatment of Women Inventory)

Tolman(1989)이 개발한 PMWI를 연구자가 번역한 후 4명의 심리학 전공 대학원생이 읽고 이해하기 힘든 문항을 1차 수정하였고, 번역사 자격증 소지자와 영어 및 한국어에 능한 교포에게 2차 수정을 하게 하였다. 또한 한국사회에서만 나타나는 심리적 학대 문항(시집과의 갈등, 아들선호)을 추가하여 총63문항을 작성했다. 5점 척도로 답하도록 했고 신뢰도계수 Cronbach's α는 .99로 보고되었다.

사건의 영향 척도 (IES-R: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외상사건을 경험한 당사자의 충격을 측정하기 위해 Weiss와 Marmar(1996)의 IES-R를 사용하였다. 총 22개의 문항으로 지난주에 나타났던 증상의 빈도를 4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 Cronbach's α는 .98이었다.

자기의식적 정서 척도 (TOSCA: The Test of Self-Conscious Affect)

심종온(1999)이 번안한 Tangney, Wagner 및 Gramzow(1989)의 자기의식적 정서척도(TOSCA) 중에서 수치심과 죄책감을 측정하는 문항만을 선택하여 사용했다. 먼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상황이 제시되고, 각각의 상황아래에는 자기-의식적 정서를 현상학적으로 나타내는 몇 가지의 대안 중에서 그렇게 반응할 가능성을 5점 척도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수치심 15문항, 죄책감 15문항으로 총30문항이었고,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수치심 .65, 죄책감 .72로 보고되었다.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김영환(1998)이 번안한 Procidano와 Heller(1983)의 가족(PSS-Fa; Perceived Social Support From Family) 및 친구로부터 지각된 사회적 지지척도 (PSS-Fr; Perceived Social Support From Friend)를 사용했다. 각각 20문항으로 총40문항이었고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되었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PSS-Fa .93, PSS-Fr .83로 나타났다.

절 차

설문지 배부는 서울과 경기지역 회사3곳, 교회 1곳, 아파트와 전국에 있는 가정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쉼터를 중심으로 배부, 수거하였다. 쉼터의 경우, 먼저 전국에 있는 상담기관에 전화를 걸어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쉼터관계자에게 설문지를 전달했다. 우편을 통한 설문의 경우, 질문지 완성 후에 동봉된 반송용 우편봉투를 넣어서 연구자에게 반송되도록 했다. 설문지 응답순서는 TOSCA, PMWI, CTS, PSS-Fa, PSS-Fr순 이었으며 질문지 완성에 걸린 시간은 30분 내외였다.

자료분석

심리적/신체적 학대와 수치심, 죄책감, 사회적 지지, PTSD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심리적 학대가 PTSD증상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신체적 학대점수를 공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수치심과 죄책감이 심리적 학대와 PTSD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다수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학대와 PTSD증상을 중재하는지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본 연구에 포함된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와 각 변인간의 상관은 표 1과 같다. PTSD증상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척도는 심리적 학대였고, r= .761, p<.01, 다음으로는 신체적 학대였다, r= .684, p<.01. 그 다음은 가족의 지지였고, r= -.314, p<.01, 그 다음은 수치심이었다 r= .296, p<.01. 그러나 죄책감과 친구의 지지는 PTSD증상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이하게도, 죄책감은 친구의지지, r= 179, p<.05, 및 가족의 지지, r= 254, p<.01, 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

심리적/신체적 학대는 특히 가족지지와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r= -.413, p<.01, r= -.317, p<.01. 또한 수치심은 심리적 학대, r= .237, p<.01, 및 신체적 학대, r= .227, p<.01, 와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지만, 죄책감은 심리적/신체적 학대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심리적 학대가 PTSD에 미치는 영향

먼저, 심리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PTSD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예측대로 심리적 학대는 PTSD증상을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F(1, 173) = 237.721, p<.001, 신체적 학대도 PTSD증상을 매우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F(1, 173) = 152.289, p<.001.

심리적 학대와 PTSD증상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신체적 학대를 통제하고 심리적 학대와 PTSD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아래에 나타난 것과 같이 신체적 학대를 통제한 후 심

표 1. 심리적/신체적 학대, 수치심, 죄책감, 친구/가족 지지 및 PTSD의 평균과 상관

변인	M	SD	1	2	3	4	5	6	7
1. 심리적 학대	135.09	57.47	-						
2. 신체적 학대	13.31	6.46	.776**	-					
3. 수치심	40.23	8.74	.237**	.227**	-				
4. 죄책감	52.43	8.16	.005	-.056	.383**	-			
5. 친구지지	72.59	15.59	-.174*	-.155*	-.045	.179*	-		
6. 가족지지	66.45	11.21	-.413**	-.317**	-.178*	.254**	.439**		
7. PTSD 증상	40.98	18.83	.761**	.684**	.296**	.134	-.121	-.314**	-

*p<.05 **p<.01

표 2. 신체적 학대를 통제한 후 심리적 학대가 PTSD 증상에 미치는 효과

투입순서	예측변인	R^2	ΔR^2	β
1	신체적 학대	.468	.468	.684***
2	심리적 학대	.601	.133	.578***

***$p<.001$

리적 학대는 PTSD의 설명량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심리적 학대가 PTSD에 미치는 독립적 효과가 유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수치심의 심리적 학대와 PTSD의 매개효과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심리적 학대에서 매개변인으로 상정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친 영향도 유의하였으며,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친 영향도 유의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인으로부터 종속변인으로 가는 회귀계수가 첫 번째 방정식보다 세 번째 방정식에서 더 적었다. 따라서 수치심이 심리적 학대와 PTSD사이를 매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심리적 학대의 직접적 효과가 유의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과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표 3. 수치심의 매개효과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단계	종속변인	*Beta*
1단계 :	독립변인 → 매개변인 심리적 학대 → 수치심	.237**
2단계 :	독립변인 → 종속변인 심리적 학대 → PTSD증상	.761***
3단계 :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1) 심리적 학대 → PTSD증상 2) 수치심 → PTSD증상	.735*** .110*

*$p<.05$ *$p<.01$ **$p<.001$

죄책감의 심리적 학대와 PTSD의 매개효과

표 4를 보면 죄책감은 PTSD를 유의하게 설명하였지만 심리적 학대는 죄책감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죄책감은 심리적 학대와 PTSD를 매개한다는 것을 지지할 수 없었다.

다음으로, 수치심, 죄책감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PTSD를 얼마나 고유하게 설명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두 변인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예측한 대로 수치심은 PTSD를 유의하게 설명하였지만 죄책감은 그렇지 못했다. 이것은 수치심이 PTSD의 고유설명변인으

표 4. 죄책감의 매개효과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단계	종속변인	*Beta*
1단계 :	독립변인 → 매개변인 심리적 학대 → 죄책감	.005
2단계 :	독립변인 → 종속변인 심리적 학대 → PTSD증상	.761***
3단계 :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1) 심리적 학대 → PTSD증상 2) 죄책감 → PTSD증상	.760*** .121*

*$p<.05$ ***$p<.001$

표 5. 수치심, 죄책감이 PTSD에 미치는 영향

예측변인	R^2	F	β
수치심	.088	8.371***	.287***
죄책감			.024

***$p<.001$

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의 학대와 PTSD의 중재효과

심리적/신체적 학대가 PTSD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사회적 지지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표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심리적/신체적 학대변인과 가족/친구지지가 종속변인을 설명한 후에 교차항이 투입되었을 때, R^2 *증가분*이 PTSD 증상을 부가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신체적 학대와 PTSD의 중재변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학대)에 부가하여 PTSD증상을 설명력을 증가시켜주는 매개

표 6.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예측변인	R^2	ΔR^2	F
신체/심리학대	.603	.603	128.88***
가족/친구지지	.604	.001	64.04***
A*B	.610	.006	32.09***

****p*<.001

〈표 7〉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단계	종속변인	*Beta*
1단계 :	독립변인 → 매개변인 심리적/신체적 학대 →사회적 지지	-.327***
2단계 :	독립변인 → 종속변인 심리적/신체적 학대 → PTSD증상	.761***
3단계 :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1) 심리적/신체적 학대 → PTSD증상	.762***
	2) 사회적 지지 → PTSD증상	-.024

***p*<.001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학대와 PTSD증상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인이 아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여성에 대한 심리적 학대가 PTSD 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Street & Arias, 2001, Vitanza et al., 1995)를 바탕으로, 개인의 정서/인지적 요인으로써 수치심, 죄책감과 환경요인으로써 사회적 지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심리적/신체적 학대는 PTSD증상을 의미있게 설명하였다. 심리적 학대의 독립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신체적 학대를 통제한 후에도 심리적 학대가 PTSD를 독립적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는 심리적 학대가 독립적으로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과 신체적 학대에 의한 증상을 좀더 악화시킨다는 것을 증명해 준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신체적 학대만을 주요 문제로 다루어왔던 기존의 연구방향에서 벗어나 심리적 학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심리적 학대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중재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사실과, 이미 만들어진 치료프로그램이라도 심리적 학대로 인한 영향을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명확하게 언급함으로써 치료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둘째, 수치심은 심리적 학대와 PTSD를 매개하였으나 죄책감의 매개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비록 심리적 학대가 PTSD증상에 직접적으로 많

은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심이 학대와 PTSD를 매개한다는 연구결과는 심리학적 중재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Lewis(1971)는 수치심을 가리켜 숨거나 사라지고 싶은, 더 나아가면 죽고 싶어하는 욕구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부정적이고 고통스런 상태로써, 더럽혀진 자아가 노출되는 것을 피하려는 요구이며 종국에는 신체적인 굴욕감마저 느끼게 한다(Feiring et al., 2000). 또 수치심은 어떤 일에 실패하거나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자신이 미치지 못 할 때 발생하며, 자기가 관찰하는 자기와 관찰되는 자기로 나뉘어지며 자기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염려한다. 따라서 수치심은 종종 숨거나 사라지고 싶어하듯이 회피행동을 일으키게 한다(심종온, 1999). PTSD의 주요증상을 재경험, 과잉각성, 회피행동이라고 볼 때, 회피행동과 재경험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Foa & Rothbaum, 1998). 즉 재경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회피행동을 하게 되고, 역으로 회피행동을 함으로써 재경험 증상이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치심이 회피행동을 동기화시킨다는 것과 외상사건의 회피행동과 재경험증상이 서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치료는 PTSD의 기저에 있는 병리요소인 수치심 인지와 수치심-정서반응에 직접적으로 도전해야 할 것이다. 즉 수치심을 제거함으로써 피해자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회피행동으로 인한 불안을 더 이상 재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치료자는 인지재구성기법을 통해 "나는 매우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인간이다" 식의 자동적인 부정적 사고와 자아에 대한 역기능적 믿음을 현실적인 사고로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Foa와 Jaycox(in press)는 PTSD의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서 외상을 겪은 후 자연스런 회복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폭행이나 외상성 사건을 경험하면 보통 정서적으로 쇼크를 받거나 정서적 문제(불안, 재경험, 과잉각성, 회피, 우울 등)를 일으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폭행 후 자신이 가지는 비인간적인 느낌, 자아이미지의 붕괴, 회피, 정서적 무감각(emotional numbing), 우울감 등을 상담자와 함께 탐색함으로써, 외상사건 후 변한 자신의 행동, 정서반응이 미쳐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자연스런 회복과정 중 하나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죄책감의 매개효과는 지지되지 못했다. 즉 죄책감은 PTSD를 유의하게 설명했지만 학대는 죄책감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설명되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죄책감이 몇몇 정신병리와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수치심과 죄책감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연구했기 때문이라던 Tangney, Wagner, Fletcher 및 Gramzow(1992)의 주장을 지지하는 연구결과였다.

둘째, 수치심이 전체자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이며 회피행동을 동기화하는데 비해 죄책감은 어떤 행동이 실패한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상행동을 동기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수치심에 비해 죄책감은 다소 자기와 떨어져서 개인의 핵심적인 정체성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통합되어 온전하게 남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치심을 가진 생존자들이 죄책감을 가진 생존자보다 삶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수치심과 죄책감 중 어떤 정서가 PTSD증상을 더 의미있게 설명하는지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 수치심은 유의하게 설명했으나 죄책감은 그렇지 못했다. 이것은 Tangney(1996)와

Andrews(1995)가 언급한 것처럼 죄책감보다 수치심이 인간을 좀더 무력화시키는 병리적 정서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였다. 따라서 학대받는 여성의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임상가는 그들이 느끼는 죄책감보다는 수치심에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신체적 학대와 PTSD를 중재한다는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사회적 지지와 같은 "접근적인 대처전략"은 통제 가능한 스트레스에 사용했을 때에만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며 통제 불가능한 스트레스상황(만성적인 학대)에서는 "회피적인 전략"이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Compaz, Banez, Malcarne, & Worsham, 1991). 아마도 가족 및 친구의 지지는 피해여성들에게 자립에 필요한 거취·자녀문제, 경제문제 등의 실질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못 하는데 비해, 피해여성들이 만성적인 학대를 회피함으로써 얻는 긍정적 결과가 더 클 것이다. 따라서 만성 스트레스인 학대는 사회적 지지와 같은 "접근적인 대처전략"보다는 "회피적 대처전략"이 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사회적 지지가 학대와 PTSD를 중재하지는 못했지만, 가족지지와 PTSD증상이 부적상관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여성개발원의 연구(1993)에서 보듯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도움을 받았던 여성들은 대체로 친구나 이웃을 거쳐 시댁이나 친정, 상담소, 경찰 순서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여성들이 힘들 때 가장 먼저 기댈 수 있는 지지자원이 가족과 친구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피해자가 가족지지에 대해 양가감정을 느낀다하더라도 그 자체로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유용한 자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와 추후 연구하여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대는 매우 만성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성의 원래 성격특성이 어떠한지, 혹은 학대로 인한 증상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횡단연구를 통해 측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결혼초기, 중기, 후기별로 결혼추이에 따른 부부갈등, 학대, 심리상태에 대한 장기 종단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질문지법을 사용한 연구로서 질문지 연구가 지니는 여러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쉼터에 거주하는 피해여성의 경우, 심각한 신체적/정서적/인지적 손상으로 인해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한 여성이 많아서 설문지를 읽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문항수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설문에 응답할 능력이 없는 여성의 경우 인터뷰를 통한 방식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가족지지의 경우, 일부 응답자들이 가족의 범위를 혼동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외국의 경우는 대개 가족을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식구만 고려하는데 비해, 우리 나라에서는 대개 가족을 친정, 시댁까지 넓혀서 생각하는 등 비교적 광범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가족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심리적 학대 중 어떤 요인이 수치심을 통해 PTSD를 예측하는지 알 수 없었다. 심리적 학대는 다양한 파트너 행동을 포함하는 서로 이질적인 구성개념으로, Tolman(1989)은 심리적 학대척도가 지배/고립요인과 정서적/언어적 학대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여성에 대한 심리적 학대의 구성개념을 파악하고 유형화시켜,

그 중 어떤 요인이 심리적으로 부적응을 일으키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는 가정폭력피해여성과 일반지역사회여성을 통합해서 연구했으나 두 집단간에는 경제력이나 교육수준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변인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집단(신체적/심리적 학대)과 일반지역사회집단(심리적 학대)이 나타내는 정서와 증상, 회복환경,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학대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치료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환 (1998). 부적 사건 경험, 완벽주의적 성향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자살생각간의 상관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재엽 (1998). 한국 가정폭력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5.

박미은 (1997). 매맞는 아내들의 학습된 무기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서울여성의 전화 (2001). 「여성 1366」의 2001년도 상담통계. http://www.womanrights.org/databoard/.

심영희 (1996). 가부장적 테러리즘의 발생 유지기제와 사회적 대책. 가정폭력, 그 실상과 대책,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심종온 (1999).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 경향성 및 사건귀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호영 (2002). 부끄러움. 서울: 청년의사.

한국여성개발원 (1993).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75.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4th eds.)*. Washington, DC: Author.

Andrews, B. (1995). Bodily shame as a mediator between abusive experiences and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4,* 277-285.

Andrews, B., Brewin, C. R., Rose, S. & Kirk, M. (2000). Predicting PTSD symtoms in victims of violent crime; The role of shame, anger, and childhood abus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9,* 69-73.

Astin, M. C., Lawence, K. J., & Foy, D. W. (1993).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mong battered women: Risk and resiliency factors. *Violence and Victims, 8,* 17-28.

Campbell, J. C. (1989). A test of two explanatory models of women's responses to battering. *Nursing Research, 38,* 18-24.

Center for policy Research. (1981). *Legacies of Vietnam; Comparative adjustment of veterans and their peers.* New York: Author.

Compas, B. E., Banez, G. A., Malcarne, V., & Worsham, N. (1991). Perceived control and coping with stress: A developmental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Issues, 47,* 23-34.

Feiring, C., Rosenthal, S., & Taska, L. (2000). Stigmat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friendship and romantic relationships in adolescent victims of sexual abuse. *Child Maltreatment, 5,* 311-323.

Foa, E. B., & Jaycox, L. H. (in press).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Theory and practice. In D. Spiegel (Ed.), *Psychotherapeutic frontiers: New principles and practice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Foa, E. B., & Riggs, D. S. (1993).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rape victims. In J. Oldham, M. B. Riba, & A. Tasman(Eds.), *American Psychiatric Press Review of Psychiatry, 12,* 273-303. Washington, DC:American Psychiatric Press.

Foa, E. B., & Rothbaum, B. O. (1998). *Treating the Trauma of Rape,* p.73. New York, London: The Guilford Press.

Gelles, R. J., & Harrop, J. W. (1989). Violence, battering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wome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4,* 400-420.

Green, B. L., Wilson, J., & Lindy, J. D. (1985). Conceptualizing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 psychosocial framework. In C. Figley(Eds.), *Trauma and its wake: the study and treatment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p. 53-69).* New York; Brunner/Mazel.

Janoff-Bulman, R. (1992). *Shattered assumptions; Towards a new psychology of trauma.* New York; The Free Press. pp. 256.

Kemp, A., Green, B. L., Hovanitz, C., & Rawlings, E. (1995). Incidence and correlate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battered women: Shelter and community sampl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0,* 43-55.

Kemp, A., Rawlings, E. I., & Green, B. L. (1991).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in battered women: A shelter sampl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4,* 137-148.

Kubany, E. S., Haynes, S. N., Abueg, F. R., Manke, F. P., Brennan, J. M., & Stahura, C. (199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Trauma-Related Guilt Inventory(TRGI). *Psychological Assessment, 8,* 428-444.

Lee, D. A., Turner, S., & Scragg, P. (2001). The role of shame and guilt in traumatic events: A clinical model of shame-based and guilt-based PTSD.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74(4),* 451-466.

Lewis, H. B. (1971). *Shame and guilt in neurosi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Murphy, C., & Cascardi, M. (1993). Psychological aggression and abuse in marriage. In R. L. Hampton, T. P. Gullotta, G. R. Adams, E. H. Potter, Ⅲ, & R. P. Weissberg (Eds.), *Family violence: Prevention and treatment(pp. 86-112).*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Okun, L. (1986). *Woman abuse: Facts replacing myth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Procidano, M. E., & Heller, K. (1983). Measure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from friends and family: The Validation Studi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1(1),* 1-24.

Russell, M. N., Lipov, E., Phillips, N., & White, B. (1989). Psychological profiles of violent and nonviolent maritally distressed couples. *Psychotherapy, 26,* 81-87

Sackett, L. A., & Saunders, D. G. (1999). The impact of different forms of psychological abuse on battered women. *Violence and Victims, 14,* 165-117.

Silver, R. L. & Wortman, C. B. (1980). Coping with undesirable life events, In J. Garber and M. E. P. Seligman(Eds.), *Human Helplessness,* New York: Academic Press.

Star, B., Clark, C. G., Goetz, K. M., & O'Malia, L. (1979). Psychosocial aspects of wife battering. *Social Casework, 60,* 479-487.

Street, A. E. & Arias, I. (2001). Psychological abuse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battered women; Examing the roles of shame and guilt. *Violence and Victims, 16,* 65-78.

Tangey, J. P. (1996).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the assessment of shame and guilt.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4,* 741-754.

Tangney, J. P., Wagner, P. E., Fletcher, C. & Gramzow, R. (1992). Shamed into anger? The relation of shame and guilt to anger and self-reported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669-675.

Tangney J. P., Wagner, P. E., & Gramzow, R. (1989). *The Test of Self-Conscious Affect Fairfax.* VA; George Mason University.

Tangney J. P., Wagner, P. E., & Gramzow, R. (1992). Proneness to shame, proneness to guilt,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 469-478.

Tolman, R. M. (1989). *The Psychological Maltreatment of Women Inventory* (PMWI). *http://www.umich.edu/.*

Vitanza, S., Vogel, L. C. M., & Marshall, L. L. (1995). Distress and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abused women. *Violence and Victims, 10,* 23-34.

Walker, L. E. (1979). *The battered woman.* New York: Harper & Row.

Weiss, D. S., & Marmar, C. R. (1996). The Impact of Event Scale Revised. In J. P. Wilson, & T. M. Keane (Eds.), *Assessing psychological trauma and PTSD* (pp. 399-411). New York; The Guilford Press.

원고접수일 : 2003. 9. 25
게재결정일 : 2003. 10. 20

KCI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3. Vol. 22, No. 4, 763-776

The Effects of Shame, Guilt, and Social Support on PTSD in Psychological Abused Women

Chul Eun Jeon Myoung Ho Hyun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psychological/physical abuse 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in 177 married women. Many empirical studies have showed that psychological abuse can be as harmful as physical abuse. In order to clarify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abuse on PTSD, we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independent effect of psychological abuse after statistically controlling for the effects of physical abuse. This study also examined shame and guilt as important affective experiences in the development of PTSD in abused women and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for PTSD symptoms. Result indicated that both psychological and physical abuse predicted PTSD symptoms significantly and that psychological abuse was a significantly independent predictor of PTSD symptoms even after controlling for the effects of physical abuse. In addition, psychological abuse was related to PTSD symptoms moderated by shame but not by guilt. Social support was not significant moderator between abuse and PTSD symptoms. However, support from family among social supports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PTSD symptoms. Results suggest that clinician need to give a first priority to eliminating shame that abused women may have. Preventive programs focusing not only on physical abuse but also psychological abuse are need.

Keywords : psychological/physical abus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hame, guilt, social support